

匪名『金日成』을襲名

中學을中退하고十八歲부터綠林生活

匪首·金日成의生長記 (二)

김일성이가 전기한바와같
지중하고四학년제하중에 남
방으로부터파견된 담임교원
으로부터 공산주의선전을받
아어머서부터 사상적혼란을
발었고 졸업기를앞으로 二
개월을남겨두고 그의三촌형
권이가 서대문감옥에서 사
망하게됨에 더욱급거히사상
이파괴해져서 영문학교에서

중도의학을하고는 자기의조
모인 티반석(李盤石)이가거
주하고있는 안도현을거처남
만으로부터 당시정의부(正
義府) 계용인 남만청중(南
滿靑中) 잔부이었던 티중락
(李宗洛)·박근원(朴根源)·신
영준(申榮準)·박단석(朴丹
石) 등과 손을맞잡고 권의
형제가되어 활동하고있었스

니 일성의나하는 그때十七
세이었는데 이때부터 김일
성의활동무대는 남만이였스
나 조모가간도성 안도(安
圖)현에거주하고있었던관계
로조간도에도 왕래하게되
여 간도성의사정을 다소알
게되었었다

(匪首)로유명한 김일성이
이었는데 만주사변 직전
에 토벌대에게 사살할당
히자 김일성은 김성주
(金誠柱)를 꾀쳐 만주
사변이 발발되었던 그때
즉十八세때부터 김일성(金
日成)으로 이름을못치었습
으로 근년에와서도 간도
에있던 김일성으로 오해

하는이가만흔것이있었다이
때에 정의부의세력은 점
차 쇠미하여졌고 남만과
간도방면에 중충을몰라던
대도회(大刀會)의세력이점
점팽창하여지자 대도회로
부터 정의부에대한합의
적접신하여감에따라서 남
만청중(南滿靑中)도 자의
를감추지않을수없는 상태
에빠지게됨에 김일성은
十八세되던해 즉지금부터
十一년전十二월廿八일에안
도현으로 도락오게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정의부에서는 대도
회에서 다소 신임하는 항
세봉(梁瑞鳳)을 부사령
으로 임명하여 연락을 취하
도록하였으나 역시 여의치
못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안호로
가상당하다수에만하게된것인
의 의지판권을하기위하야는
외리에비서단행동이타도하지
안오면안될것을자오하였었다
그리하여안도현을떠나서그
때 정의부계통으로 심통준
(沈龍俊)의二十여명의 무장
대가 동화상류하인삼원포(通
化省柳河縣三源浦)에 주둔하
고있는것을 습격하고 무기
(武器)를압수하였스니 이것
이김일성으로서의 처음부터
행동을개시한것이였다 그후
로는계속적으로 기회를엿보
아 류하(柳河)무송(撫松)장
백(長白)동강(洞江)동자현에
출몰하여 만군부대를습격하
고 금품과무기를탈취하는一
방 때때로북선과평북방면의
국경지대에까지침입하여 민심
을소란케하고 一점一파가
증가되어 十一년을지난금일
에이르머서는 그비단의수효
가상당하다수에만하게된것인

그리하여 작년여름에는자
기가 남만청중당시에 갖
쳐일하고있던 티중락(李
宗洛)·신영준(申榮準)·박단
석(朴丹石)·三인을당국에서
는 밀리북경(北京)으로부
러 마지하였고 평북대동
군고평면금남리(平北大同
郡古平面金南里)로부터김
의조모인티반석(李盤石)을
마지하여 귀순공작을개시

그가十二개년동안이나이
와가름 독립생활(綠林生活)
을개속하는동안에 자기의원
재생활과장래를연구하고또한
위험한바도입습수업의원래두
위가명석한사람이니만함아모
티독립중에서 세상과는거터
가 떨어져있는생활을하고있
다할지라도 세계대세의 전
환을 전여살피지못하였을것
은안이다

그리하여 작년여름에는자
초진인 七단을경유하여十
여년만에 반가하였나게되
었었다 이에의하여 김은
박위전유태로 귀순하기로
결정은하였다 김일성이
안도에서 그조모를 조선
으로 나가라고 강권하며
평북으로 나가게한것도七
년전일이니 七년만에 조
모인티씨의 반가운안부도
뜻게된것이였다(續)

하엿던것이였다 제一回공
작으로 박단석군의 간곡
한서신을 김에게보내었던
바 이외와것를서신을 받은
김일성은곧시가을넘입는듯
하기는하나 편적으로서만
은 도저히인증하기어려우
니 사진을보내라는회담이
있었다 그리하여 박군의
사진을보내었든바 이사진
을받은김은 못맛나자는회
답이이였다

그리하여 박군의 김의전
초진인 七단을경유하여十
여년만에 반가하였나게되
었었다 이에의하여 김은
박위전유태로 귀순하기로
결정은하였다 김일성이
안도에서 그조모를 조선
으로 나가라고 강권하며
평북으로 나가게한것도七
년전일이니 七년만에 조
모인티씨의 반가운안부도
뜻게된것이였다(續)

楊靖宇의 包圍脅威로

歸順工作은水泡化

工作員의 하나인李宗洛을射殺!

匪首 金日成의 生長記 (四)

안해, 딸한바와 같은, 티면사
정을 안지 못하는, 티종락은 집
일생이, 이 미귀순하기로 결
정하였으니, 이곳까지 들어와
다. 아무수 회도 업시, 도라나
갈수도 업스니, 우선 그외부하
인 7단(團)부터, 귀순시키로
티라는, 결심을 하고는, 다음
파가지, 세계대세의, 전환을
드러사, 전하기 시작하였다.

나를, 후아실이 도개실것입
니 다만은, 나는 과거에는 만
주에 있어서, 유명할공산당
이 었습니 다. 여터분과 갖치
온갖 곤란을 겪어가면서, 독
립생활을 계속한대야, 압호
로, 하동서까지 빚치질것업
고, 티상적사회를, 전철할
수업는 것이, 한하의대세입
니 다.

넌이 되는데, 지금은, 여터
분과 갖흔, 독립재(綠林客)
을 귀순시키여, 다 갖치질
하야, 만주국의, 락로진
선에 협력하는 동시에, 총하
운동(興亞運動)의, 선구자
가 되려는, 사명을 가진, 귀
순공작대원(歸順工作隊員)
임니 다.

이런데, 이곳까지 차자들이
오게된것도, 이와 같은사명
에서, 티종락에게 매하여는

하동의, 찬동여부를, 나래내
지안코이사일을, 못알정우에
게 보고하였었다.

이때에, 양정우는, 부하들거
나리고, 김일성의 전초병이 주
둔하고 있는 七,八,九十, 단본
부들지나, 중앙에 있는 김일성
의, 직속부대의 발견을치고
는, 김을 면회하고, 사실을 전
문하였는데, 김일성은, 다음
갓빈치명하였었다.

“사명도 잘아는 바이지만은
나의 심리가, 잡악이 그와 갖
치면 하얏슬터가 있습니 다외
근에 공작대가, 자조드터오
기는 해요, 공작대의 말을 참
고로, 드물필요도 업지안음
으로, 맞나는 세도잇섯서요
전일에도, 나와 갖치, 일
하던, 박단석(朴坦石)이가
맞나 자기에, 들어오게 하야
하도 말자고 개한일이 잇섯
는데, 또 몇차례에는, 그당
시에, 갓빈치하였고, 절의
형제이던 티종락(李宗洛)이

가, 7단에 와서, 맞나 갖다
는 편지가 왔스나, 비무자조
맞날필요도 업습으로 내가 다
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스니, 맞
날수업다고, 면회를 거절하
냈지요, 그런오해는, 절대
하지지마터요는,

이와 같은, 변명을 들은, 양정
우는, 원래, 김일성이 틀신인
하야 오던치지안지마, 그대도
맞치안습수업섯다.

그리하여, 7단에 명령하야
티종락을 불러드려, 정과를 취
조하기 시작되었었다. 이때에
종락의, 혼자생각에, 나는 틀
론, 이것으로, 최후를 맞칠것
이다, 그러나, 나는 임의이 소
굴을, 버서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 지만은, 김일성이 아직 죽
일필요는, 업다는 것을, 전실
히 늦기고 다유과가 티말하였었다
내가 말하기전에, 당신의 부
하들의 보고로써, 내가 7단
에서, 귀순공작에 매한선전
을 한것은, 잘아실것입니
다. 당신도 진히, 세계대세
를 모르실것은 안이지만, 이
와 같은 독립생활은, 지속하
면서, 보는 세계대세와, 평
지에서 보는, 세계대세의 전
환은, 현격한 차이가 잇습수
그것만은, 충분히, 고려했
실필요가 잇다고, 나는 단언
하고 싣습니 다. 아시는바와
갓치, 나도 과거에는, 만주
에서, 일함이 업지안은, 공
산당이 었고, 다년간, 여터
분과 갖흔, 독립생활도, 하
엿는 이만큼, 전심으로, 귀
순을 권할것입니 다. 그리하
야, 나는, 생사를 해아면치
안코, 여터분의 장대를 위하
야, 이곳까지, 차자들이 온
것입니 다.”

이와 같은, 한장의 변명과 선전
을 들은 양정우는, 한참동안은
을 잠고우엇던, 자작하다가
“당신의 이야기도, 그럴듯하
기는 업지나, 그러나, 나로써
가, 아직은, 귀순할시키는
안이니, 어느시기까지, 나
와 갓치일하면, 엿밧습니 다
?”

이와 갓치 말한대, 티종락의 생
각에도, 이와 갓치된 이상은 별
다른 방책이 업습으로, 그리하
자고, 꽤히 승락하였었다. 그리
하야, 한 개월동안이나, 티종
락은, 양정우와 한방에서, 자
고이 야기하며, 식사까지 갓치
하였었다.

한 개월을 지낸후, 어느날 양
정우는, 김일성을, 차자가 서
기관중(機關銃) 두자루를, 주
며, 누가 군에게 대한, 협담을
한대야, 그것을, 신용하지안
을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더
욱일을 만히 하라하고, 그날로
써나서, 근거지로 도라가면도
중에서, 티종락을, 총살하엿
스므로 귀순공작은, 수포로도
타가고 말섯다(四).

하로速히마음을들려

歸順하기만苦待!

故郷에잇는家族들의에타는心願

匪首 金日成의生長記 (五)

히다한공작비둘기들 들어가며
여타해동한 계속하여오던김
일성비수의 귀순공작은 암
해말한바와갓치 양정우의위
협으로 말미암아 다시수로
로모라가게되있다 그리하여

김의조모의반석도 타실하고
고향으로 도라갔다
기자는 얼마전에 어느지
방출장중에 우연히 모친우
의안배로 김일성의 조모인

분담을하잇었다
기자 당신도안주에와서개신
일이잇습니까?
미 장자형적(孝穆)과차자형
(孝廉)을따라서 동변도
방면에와서 갓치있다가형

직이가 무송진(撫松縣)을
향전에서 빛사한후에 형
권을타내고 안도진(安
圖縣)에이주하잇었는데
마되지안아서 여타친구를
과갓치 형편이가 권술을

가지고 함북(咸北)방면에
나갔다가 접거되어 서대
문감옥(西大門監獄)에서사
망되자손자(孫子)인 성주
(誠柱)(現金日城)가 차자
화서이곳에잇슬곳시 아니
니조선으로 나가라고 강
권할때못이겨서 七년전에
고향으로 도라가서잇재아
들형숙(亨祿)을타내고농사
하고잇습니다

기자 형적형권일성세사람이
어렸을때는 잇더했습니까
미 우리에들은 모다재간이
조왔지요 十三세나十四세
에 모다소하교를 초혼성
적으로졸업들했고 무송진
이른지 한변만스쳐보면기
익들했스닛가요 그때프로
형적이는 十八세때에 송

심승학교를 중도퇴학하고
동변도로왔스므로 의학(醫
學)이라고는 전혀배우지안
엇스나 약방(藥房)을시작
하고는 의학을자습하야의
술(醫術)이 용하엿지요
기자 일성의귀순문제에대해
서는 잇더케 생각하시나
요
미 우타가정에서는 하루타
도 속히귀순하기만 고대
하고잇습니다 서로 잘타
진지도 이미七개년이지내
엇스니 그동안 심타가잇
더케될것은 모르지요 작
년너름에 내가용화에가서
잇을때에 귀순하겠다는회
답을밧고는 무어라고 말
할수업는것됨에따해서박잡
도 이루지못하고 기대엿

지만 양정우란놈의방해로
귀순하지못하게되엇지요
기자 그러면 한변차자가서
밧나보실생각은업는가요
미 나로서 차자가서 밧단
대야 큰효과가잇슬타가업
스니까갈필요가업서요다
만말을들타이 속히귀순하
기만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의조부김
봉원(金鳳原)으로부러 최근
모치에들어온 사신의一단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세계대세나 동아집세의전
황을아지못하고 작란을게
속하는 생의손자 성수(誠
柱)로말미아마얼마나업터
하심닛가 미한힘을마지안
습니다 뭐수잇는대로 하
루밧비 귀순하도독하여수
심을 바랄뿐입니다』
작년너름에 귀순하미다가
양정우의한압으로 성공하지
못한 김일성은 그후一개년
을지낸이때에 동향은 잇더
한현상에잇는가?
만주의비적가운데 전루를
제一자조계속하여온적단을해
이라면 김일성부대를 누구
나해일것이다 그러나 작년
가을이래로는 전루를 잃수
잇는대로 피하여왔고 내지
인을 랍치하기만하면 죽이
던부대어잇스나 최근에이르
터서는 만일랍치하엿다할지
라도 위로하야 돌려보내는
것만볼지라도 확실히귀순하
터는말아계속되고잇는것은주
속할수잇는일이다(父)(間島
支社S記者)